

# 간투사 ‘아, 어’의 운율 유형 연구\*

노 석 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senoh@korea.ac.kr

## On the prosodic patterns of interjections /a, ə/

Seok Eun Noh

Spoken Language Information Lab,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senoh@korea.ac.kr

### 요 약

이 논문은 국어 간투사 ‘아’와 ‘어’의 운율 유형을 살펴보고, 그 운율 유형이 담화상의 기능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간투사의 지속 시간은 후행 발화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아’의 경우 ‘어’보다 뒤에 강세구가 더 많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는 강세구 성조 LLa, LHa, 또는 경계 성조 L+L%, L+HL%로 나타났으며, ‘어’의 경우 경계 성조만 L+L%, L+HL%, HH%으로 나타났다. 두 간투사 모두 발화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의외성이 클수록 발화 지속 시간이 짧고, 구 성조나 경계성조가 고조로 나타난다. 반대로 화자가 발화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거나 오해를 해결했을 경우, 발화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운율은 저조에서 수평조로 형성된다.

### I. 서론

국어에서 품사 분류상 감탄사에 포함되어 있는 간투사는 감탄사, 간투사, 담화 표지, 화용 표지 등의 용어로 주로 화용론적인 담화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sup>1)</sup> 간투사는 독자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맥락을 통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 문장의 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다. 또한 같은 분절음으로 표현되는 간투사라도 그 운율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간투사는 최현배(1971)에서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적 느낌씨와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여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는 의지적 느낌씨로 분류된 이래로 여러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그 운율 유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간투사들 중에서 ‘아, 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운율 유형이 담화상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지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 연구방법 및 대상

간투사의 운율을 연구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의 성인 세 사람이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롭게 한 시간 동안 발화한 것을 녹음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원 녹음실에서 오스트리아 AKG사의 C420B-Lock 마이크와 TASCAM DA-20 MK II DAT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16,000Hz, 16bit로 디지털화된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간투사들은 주로 선행 발화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지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A00291)

1)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간투사 중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한정하여 감탄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표출하는 간투사, 상대방의 질문에 의한 대답이나 자동적 반응을 보이는 간투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다른 문법 범주에서 전성된 간투사들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감탄사로 품사 분류되는 간투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해당하는 간투사들로 감정적 간투사로 “아아, 오오, 하” 등이, 의지적 간투사로 긍정 대답 혹은 단순한 반응 표시로 쓰인 “아, 어, 응, 네, 예, 음”이 부정적 표시로 “에, 아니”가 나타났다. 세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발화한 것을 전사한 자료에서 사용된 반응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총 343번 나타났다.<sup>2)</sup> 이 중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투사인 ‘아니’나 ‘에’가 각각 21번과 7번 출현한 것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아, 어, 응, 네, 예’의 경우 형태적 종류도 다양하고 빈도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난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로 총 121번 발화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간투사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아, 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 가운데 대상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화의 겹침이나 소음으로 인해 운율 곡선의 추출이 어려운 자료들은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간투사의 운율 분석은 wavesurfer 1.8.3을 사용하여 얻어진 운율 곡선을 사용하였고, 간투사 자체의 길이와 후행 휴지의 길이도 살펴보았다. 운율 전사는 K-ToBI를 따랐다.

### III. 간투사의 운율 유형

#### 3.1. 지속시간 및 휴지

간투사의 길이는 후행발화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경우 더 짧게 발화되며 발화가 종료되는 경우는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간투사 뒤에 휴지 없이 발화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 평균 간투사의 길이가 122ms인데 반하여, 휴지가 100ms이상일 때 평균 242ms, 휴지가 200ms이상일 때 평균 312ms으로 나타나 휴지가 있거나 발화가 종료되는 경우 간투사의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났다. 반면 간투사의 길이가 100ms이하로 짧

게 나타나는 경우 휴지 역시 100ms 이하로 짧게 나타났다.<sup>3)</sup>

또한 간투사의 종류에 따라 뒤에 휴지가 오거나, 바로 발화가 이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아’와 ‘아니’의 경우 휴지 없이 거의 후행발화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응’의 경우 거의 대부분 휴지를 동반하였다.

	아	어	아니	응
발화종료	11	38	2	65
전체개수	96	86	14	76

표 1 간투사만으로 발화가 종료된 정도

분절음별 지속시간은 ‘아’가 평균 286ms, ‘어’는 105ms, ‘음 또는 응’은 280ms으로 나타났는데, 이음절어인 ‘아니’의 경우 지속시간이 평균 160ms으로 다른 간투사보다 짧았다. 이는 ‘아니’의 경우 휴지 없이 빠르게 다음 발화가 이어지면 발화 속도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3.2. ‘아’와 ‘어’의 운율유형

간투사는 통사적으로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여 문장 구성에 간여하지 않는 것처럼 운율적으로도 독립된 지위를 차지한다. 간투사의 뒤에는 주로 억양구 경계가 형성되며 경계 성조와 휴지 구간이 나타난다. 후행 발화가 바로 이어져 나타나는 경우에도 강세구 경계는 반드시 형성된다.

간투사의 억양구 성조 유형은 국어의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저조(L%)와 고조(H%)로 나타난다. K-ToBI에 의하여 저조에는 수평조와 내림조가 모두 포함되며, 고조에는 오름조가 포함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서 간투사 ‘아’가 보이는 운율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강세구 경계 형성: LHa, LLa
- 억양구 경계 형성: L+L%, L+HL%

3) 휴지구간의 측정을 할 때 후행 자음의 폐쇄구간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거의 휴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발화나 소음에 겹쳐서 나타난 간투사가 포함된 수치이다

간투사 ‘아’ 뒤에 강세구 경계가 형성되는 경우 휴지가 거의 없이 후행 발화가 바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어말장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장음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300ms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4)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LLa인데 주로 수평조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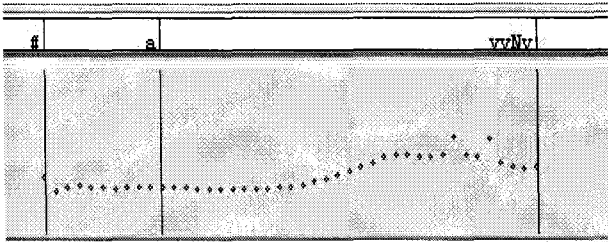


그림 15 “아 영어”

<그림2>처럼 오름조로 나타나는 LHa와 같은 경우 LLa보다 빈도는 적게 나타나면서 좀더 감탄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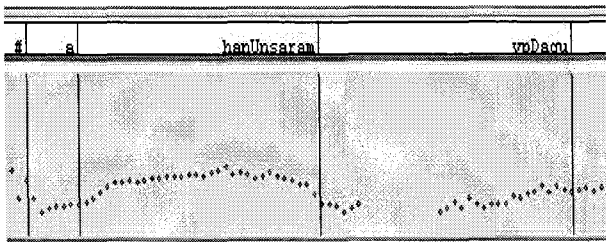


그림 16 “아 하는 사람 없다구”

간투사 ‘아’ 뒤에 억양구가 형성되는 경우에 경계성조는 저조(L%)나 고저조(HL%)로 나타난다. 어말장음화는 억양구 경계 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나 간투사들은 정서적 장음화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현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경계 성조는 대부분이 L%로 나타났는데 수평조뿐 아니라 내림조도 볼 수 있다.

4) 국어에서 간투사 {아}와 {아아}는 사전에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등 별개의 단어로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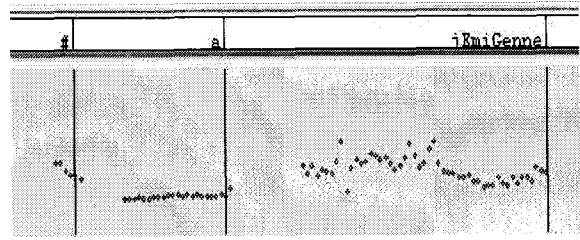


그림 17 “아 재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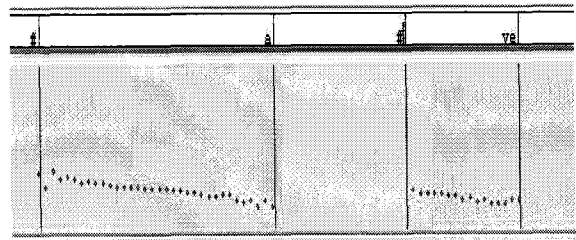


그림 18 “아 예”

<그림3>은 간투사 ‘아’가 억양구 경계에서 수평조로 형성된 예이고 <그림4>는 내림조로 형성된 예이다. <그림3>과 같이 억양구 경계가 수평조로 형성되는 경우 휴지를 제외하면 억양곡선의 모양은 <그림1>의 LLa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4>와 같이 경계성조가 내림조로 형성이 되는 경우는 주로 발화초에 화자가 발화 순서를 인식하면서 많이 나타난다. 수평조가 내림조보다 더 지속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내림조의 장음화는 어말 장음화라면 수평조의 장음화는 정서적 장음화에 가깝다.

또 L%외에 간투사 ‘아’의 경계성조로 나타나는 HL%의 경우 L%보다 감탄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L%보다 발생하는 빈도가 적은 편이다. <그림5>는 HL%의 예인데 발화자의 전체 발화는 “돈이 없을 걸. 아 굳이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지”이다. 간투사 ‘아’는 발화자가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해당 발화 직전에 그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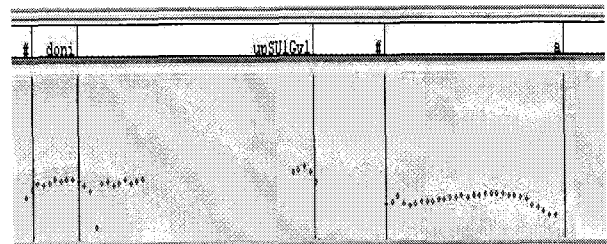


그림 19 “아 굳이 그걸 만들어서”

다음으로 간투사 '어'의 운율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어'의 경우는 '아'와는 달리 후행 발화가 이어지더라도 휴지가 오는 경우가 많고, 강세구 경계보다 억양구 경계가 훨씬 더 많이 실현된다. 간투사 '어'가 보이는 운율구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2) 강세구 경계 형성: LHa

억양구 경계 형성

: L+L%, L+HL%, HH%

L%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가 상대 발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듣고 있다는 표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아'와 마찬가지로 수평조와 내림조가 있다. <그림6>은 '어'가 내림조로 실현된 예인데, 장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후행 발화가 거의 휴지 없이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림조이기 때문에 경계가 강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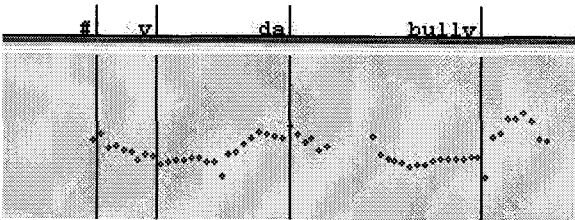


그림 20 어 다 불러

또 경계성조가 HL%로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그림7>처럼 화자의 놀라움을 표시하는 경우 비교적 지속시간이 짧고 억양 곡선의 경사도 급하다. 반면 상대발화에 대한 긍정을 좀 더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 <그림8>처럼 더 길고 완만하게 나타난다. <그림7>의 간투사 지속 시간은 113ms이고, <그림8>의 지속 시간은 332m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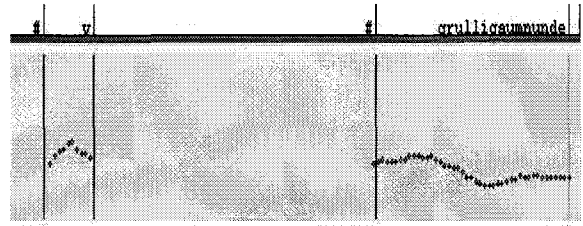


그림 21 “어? 그럴 리가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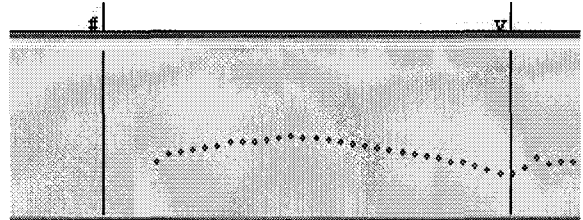


그림 22 “어 (그래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어'의 경계 성조가 H%로 실현될 때는 주로 선행 발화에 대한 반문이나, 상대방 발화에 의혹이나 의의가 있을 경우이다. 수평조와 오름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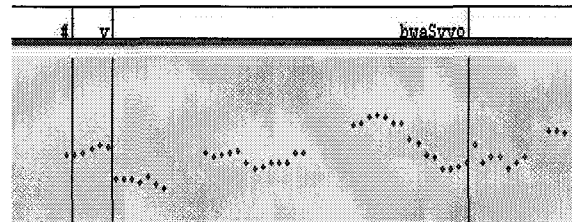


그림 23 “어? 봤어요”

IV. 결론

최호철(2000)에서는 감정감탄사 '아'의 기본의미를 <놀람><초조><기쁨><슬픔><후회><각성>, '아아'의 기본의미를 <감격><한탄><놀람>으로 보고, '어'의 기본의미는 <놀람>, <초조>, <기쁨>, <슬픔>, <후회>로 보면서 국어의 감정 감탄사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써 가장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 어'류라고 하였다.

실제 자료에서 간투사 '아'의 의미는 주로 <각성>과<놀람>으로 사용되었는데 두 의미가 분리되어 사용되기보다 화자의 의외성과 그에 따른 이해가 동시에 간투사 '아'를 통하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놀람> 즉 발화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의외성이 클수록 발화 지속 시간이 짧고, 구성조나 경계성조가 고조로 나타난다. 반대로 화자가 발화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거나 오해를 해결했을 경우, 발화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운율은 저조에서 수평조로 형성된다. 물론 심리적인 원인 이외에도 발화 지속 시간에는 후행 발화의 존재 여부 역시 영향을 끼친다.

이는 ‘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는 감정 감탄사 외에도 선행 발화에 대한 긍정을 표시하거나 의문을 포함하는 의지 간투사이기도 하다. ‘어’는 실제로 <놀람>이나 <긍정대답> <반문>에 사용되었는데, ‘아’와 마찬가지로 놀람의 정도가 크거나 반문에 사용될 때 짧은 발화 지속시간과 고조의 성조 유형을 보이며, 긍정의 의미를 가진 대답에는 저조이면서 비교적 긴 발화 지속 시간을 보였다. 또한 같은 저조일 때도 하강조의 역양은 단호하고 확실한 느낌을 주며, 수평조이면서 지속 시간이 늘어날 경우 후행 발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발화자의 반론이 뒤를 잇기도 한다.

이상으로 간투사 ‘아’와 ‘어’의 운율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국어의 많은 간투사 중에서 ‘아, 어’를 먼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두 간투사가 하나의 형태로 가장 많은 의미를 표현할 뿐 아니라 가장 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다른 간투사들의 운율 유형도 살펴본다면 운율의 변화와 미시적 의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통찰해 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하수, “언어행위와 듣는 이의 신호에 관한 화용론적 분석 시도: 담화속에 ‘네.’” 「말」1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89
- [2] 노대규,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1983
- [3] 노대규, “감탄사 ‘네’의 의미와 그 용법”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1991
- [4] 신현숙, “담화 대응 표지 {그래}의 의미 연구” 「인지과학」Vol.2. No.1., 1990

- [5] 오승신, “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5
- [6] 오승신,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1997
- [7] 최호철, “현대 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감정 감탄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모국어 정신」, 국학자료원, 2000
- [8]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 [7] Sun-Ah Jun,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pp. 149-173. 2000.